

중국의 목양산업

중국 목양산업의 역사는 뚜렷하지 않으나, 기원전 7000년경의 유적에서 야생 양과는 다소 작은 몸집의 양의 유골이 대량으로 출토되어 이미 이 무렵부터 양이 가축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 전달된 양의 조상은 중앙아시아의 아갈리(argali), 현 중동지방의 아시아 무플론(muflon), 인도의 우리알(urial) 중에서 한 가지 혹은 혼혈된 종자가 동쪽으로 흘러왔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의 무플론이 원종(原種)일 것이란 학설이 주류를 이룬다.

중앙아시아에서 발원된 이러한 원시 양이 북쪽으로 올라가 유럽으로 전파된 양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개량이 반복되어 오늘날의 메리노 양이란 형태로까지 발전하였으나, 동쪽으로 이전된 양은 수천 년 동안 하나도 개량이 되지 않은 채 원시 양의 형태 그대로 남아 있다.

이중에서도 중국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데, 2011년 현재 중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양은 1억 3천 4백만 마리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육 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약 3억 9천만 kg의 양모가 생산되고 있다. 세계 총 양모 생산량의 19.7 %를 차지하고 있다. 그나마도 양모는 개량이 되어 있지 않아 색모(色毛)가 많이 들어가 있고 거의가 카펫 울이다.

호주의 양 사육두수(7천 3백만 마리)보다 두 배 이상이나 되면서도 양모 생산량은 호주의 3억 7천만 kg보다 많지 않다는 것은 양모보다도 식용으로의 공급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원래 중국에서 오래 전부터 키워온 여섯 가지 가축 즉 말, 소, 양, 닭, 개, 돼지 중의 하나로 양은 중요한 가축 중의 하나였다. 그 털은 중요한 모직물의 원료가 되며, 고기는 식용으로 그리고 양의 젖(羊乳)은 음용하든가 가공되어 식용으로 공급되었다. 그리고 양의 고기나 젖은 극히 일반적인 식자재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이슬람교도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

문에 회교 인종이 많은 서북부에서는 양고기가 주요 식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양을 사육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지방과 양모였는데, 염소가 양의 사육보다 훨씬 앞서 있었 으면서도 염소에는 지방이 양에서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의 젖은 염소의 젖보다도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였고, 돼지고기를 기피하던 종교적인 이유로 양의 지방이 돼지의 지방을 대신하게 된 이유도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육되는 양 중의 약 50 %가 미지(Fat tail)종에 속하는 몽고리안(mongolian), 탄(tan), 우시(wushi), 퉁조우(tungchow) 및 칼카스(khalkhas)로서 중국의 북부에서 사육되고 있다. 다른 약 35 %는 단미(short tail)에 속하는 티베탄(tibetan)으로서 서남부 티베트에서 사육되며, 약 10 %는 엉덩이에 살이 많은(fat rumped) 종의 카자흐(kazakh) 또는 하사(hasa)종으로 신장 위구르 지구에서 사육되고 있다. 나머지 5 %가 호주와 러시아에서 도입된 개량종 및 교류종이라고 알려져 있다. 거의 전부가 카펫용 양모를 산출하지만, 같은 양종이라도 지방에 따라 그 성질이 다소 달라진다.

가령 예전부터 개량되었다는 한양(寒羊)과 같이 헤어리(hairy)하지 않고, 크림프가 있는 28 μm 정도의 아름다운 양모를 생산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탄(tan) 종과 같이 생후 한 달 정도에서 도살되어 좋은 모피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양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양모는 가느다란 18~20 μm 정도의 면모와 35~50 μm 정도의 자모가 섞여서 캐시미어보다도 굵으며, 정모하게 되면 캐시미어와 비슷한 양모를 채취할 수 있다.

채모 방법도 캐시미어와 같아서 봄이 되면 빗으로 양모를 빗어내기 때문에 조모(抓毛)¹⁾라고 한다. 채취된 양모의 상태가 공처럼 둥글기 때문에 영어로는 'ball wool' 또는 'china ball'이라고 한다. 또한 전모 시기는 1년에 두 번인데, 봄에 깎는 털을 춘모, 가을에 깎는 털을 추모라고 한다.

중국의 북서부 지방에서 사육되는 칼카스 및 몽고리안은 면모가 적고, 헤어리(hairy)한 긴

1) 조모(抓毛): 빗으로 빗어 줌으로써 빠져 나오는 털이란 뜻으로 抓는 할퀴조 임.

털을 갖고 있다. 1년에 한 번 깎는 양모는 플리스(fleece) 상태가 되는데, 하나의 플리스가 마치 외투처럼 생겼다고 하여 투모(套毛)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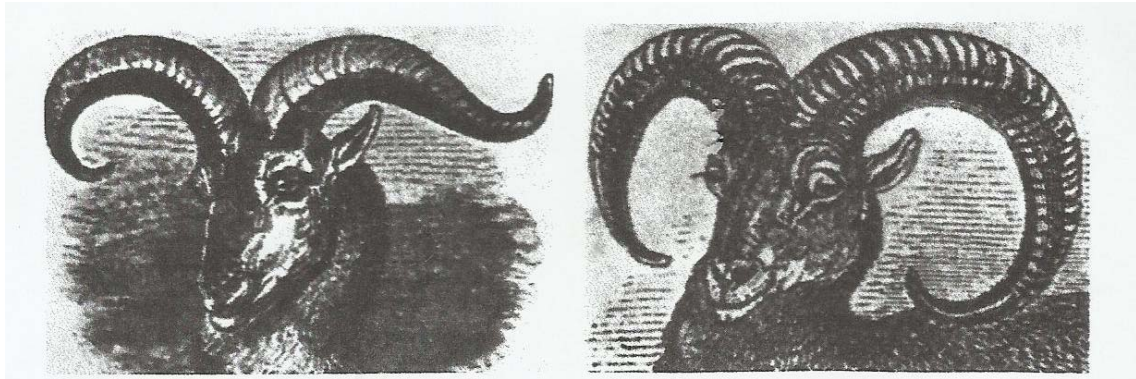
통쑤우(tungchow)라는 양의 양모는 상당히 고급품질이다. 한편 티베탄(tibetan) 양의 양모는 헤어리하고, 캠프가 많이 섞여 있다. 그러나 면모는 21~22 μm 의 가느다란 양모를 갖고 있다. 또한 하사(hasa) 양은 카라쿨처럼 주로 새끼양의 모피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티베탄 램(tibetan lamb)이라고 하여 유명하다.

중국의 북부는 강우량이 적어서 농경에 적합하지 않고, 목초지가 많아 유목민들에 의하여 양과 산양(특히 캐시미어 산양이 많음.)이 사육되고 있다. 이 근래 중국 정부는 유목민의 정착을 계획하고, 양의 개량에도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육되는 양 마리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양모의 품질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 자치주인 티베트에서도 위와 같은 지도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메리노 종이나 개량종의 수컷을 들여다가 인공수정을 하든가 적극적인 목농 정책을 펴서 고급 양모의 증산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 양모의 수출은 전부 정부의 조정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국이나 유럽이 주요 수입국이다. 주로 카펫용 양모다. 그러나 머지않아 메리노 양모처럼 가느다란 양모의 산출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로 양이란 글자를 바탕으로 발전한 몇 가지 글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착할 선(善), 아름다울 미(美), 옳을 의(義), 부러워할 선(羨), 상서러울 상(祥) 등 가치나 관념적인 뜻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 (공석봉)



<중앙 아시아 야생 양 아갈리> <남 유럽 야생 양 무플론>

♠ 연재를 마치면서

처음 이 난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소재를 소개하겠다는 의지였으나, 결국 기초적인 자료정리로 끝나는 것 같아 다소 아쉬움도 없지 않다. 기초 자료 중에서도 특히 양모와 관련된 자료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목양산업을 끝으로 이 난을 마무리한다.

처음의 포부와 달리 양모와 연관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KOTITI 시험연구원의 김영률 원장, 이상락 부원장을 위시한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실무를 담당하여 차질 없이 원고를 연재하여 주시고 자료를 보완하여 주신 진성룡 팀장 등 정보교육지원 팀원에게도 각별히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끝까지 관심있게 원고를 읽어주신 KOTITI Webzine 독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면 정말로 뜻있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